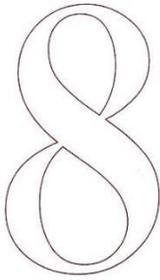


BAZAAR

ART



The List

David Hockney, <Do remember they can't cancel the spring>, 2020. Courtesy the Artist and Louisiana Museum of Modern Art



양혜규의 언어



양혜규, <침묵의 저장고 - 클릭된 속심>, 2017, 건물 현대미술센터, 베를린, 독일, 2017 Photo: Jens Ziehe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양혜규의 전시를 서울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알다시피, 이제 그의 작품은 국내보다 국외에서 더욱 수월하게 만날 수 있다.) 지적이면서도 감각적인 자극을 주는 아티스트 양혜규의 신작은 언제나 궁금하다. 올여름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될 신작 <소리 나는 조각의 사중주(가제)>는 작가의 오랜 관심사 중 하나인 '살림'을 주제로 한 것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오브제를 인체에 대응하는 크기로 확장시킨 작품이다. 물리적으로 변형된 일상의 사물을 참조물로 삼아 현실에 대한 새로운 사유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녀의 전매특허다. 대기의 움직임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 현상을 가시화한 설치작품도 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전개된 블라인드 설치 연작의 최근 단계를 보여주는 대형 블라인드 조각 <침묵의 저장고 - 클릭된 속심>도 전시된다. 끊임없이 확장되어가는 양혜규 세계의 현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들이다. 8월 29일부터 2021년 1월 17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